

# 상의 스트라이프의 방향, 폭, 색상대비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주영<sup>+</sup> · 강경자\*  
한국견직연구원 디자인지원팀 연구원<sup>+</sup>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교수\*

## The Effect of Stripe Pattern Direction, Width, and Color Contrast of Upper Garment on Impression Formation

Ju-Young Moon<sup>+</sup> · Kyung-Ja Kang\*

Researcher, Dept. of R&D of New Textile Design, Korea Silk Research Institute<sup>+</sup>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6. 9. 10 접수; 9. 29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clothing style and mixtures of stripe pattern direction, width, and coloration of an upper garment. The experimental materials made for this study are a set of stimuli and response scale(The 7-Point semantic). The subjects were 480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in Seoul, Busan, Gyeong-nam. The 80 stimuli which were variously incorporated with clothing styles and stripe patterns were assessed by the students. The following contents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mpression factors of the stimuli consists of the 5 dimensions(Attractiveness, Show, Activity, Clearness, mildness). Among these, the Attractiveness and Show dimensions proved to be more important. The clothing style and pattern direction indicated main effect in attractiveness and activity dimension. The pattern coloration showed a significant effect in dimensions except attractiveness and clearness. The pattern width had a significant effect only in the activity.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of each clothing clause were found in the attractiveness, activity and clearness, but Show and mildness had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This research, as the 06 S/S, F/W trend, is a meaningful study in that it handled in the form of expression the stripe pattern used unrestrictedly in the casual wear or the formal wear by a fashion keyword.

**Key Words:** Clothing Style(의복스타일), Stripe(스트라이프), Direction(방향), Width(폭), Color Contrast(색상대비), Impression Formation(인상형성)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Ju-Young Moon

Tel. +82-16-861-6692, Fax. +82-55-761-1291

E-mail : kmjyhappy@naver.com

## I. 서론

문양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시대의 문화, 정서를 대변함과 동시에 한 시대의 양식을 표현해 왔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문양이 갖는 의미와 그 문양이 들어간 의복을 착용한 착용자의 인상 또한 다르게 표현되었다. 변화하는 문양 중 현대 패션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문양은 기하학적 문양이다. 이 기하학적 문양 중에서도 반복과 변화에 의해 가장 강한 표현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 스트라이프 문양이다. 극적인 대비감으로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특성 때문에 의복의 성격과 착용자의 인상은 극단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특히, 중세의 스트라이프 무늬는 무질서와 범법을 상징하고, 확연히 눈에 띄는 무늬로 인해 이러한 무늬가 들어간 옷을 착용했던 자는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줄무늬는 점차 질서를 뜻하는 상징적 기호로 변해갔고, 산업 혁명에 따른 직조 기술의 발달과 현대적인 조형감각의 추구로 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모든 의상에 급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 패션에서도 변함없이 애용되고 있다.

스트라이프 문양은 일정한 방향의 스트라이프 모양이 전면에 배열되는 것으로 스트라이프의 간격, 넓이 모양 등으로 변화를 주어 만들어진 형태로 수평선, 수직선이 일률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배열되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어지기도 한다<sup>1)</sup>. 또 스트라이프 무늬는 무늬이면서 바탕이고, 유한이면서 무한이며, 부분이면서 전체이다. 따라서 스트라이프 무늬는 좀처럼 통제가 어려운 듯 보인다<sup>2)</sup>. 하지만 스트라이프 문양이 활용된 디자인은 절제된 단순함과 명확성으로 단순미가 강한 색상대비로 시각적 집중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스트라이프 무늬의 다양한 시각적인 흥미로움을 의복으로 옮겼을 때,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스트라이프 배색에 관련된 인상형성 연구는 대개 흰색과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으로 한정되었다. 의복에서 색채는 가

시적 표현력이 크고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감각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한된 색으로 인해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라이프 문양만큼이나 강한 대비감을 지니면서 기존의 연구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색상대비배색을 중심으로 착용자의 인상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 색은 추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대상과 목적에 따라 의미와 효과가 달라지므로 의복스타일을 캐주얼과 포멀한 의복으로 대상을 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의복스타일 외에도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 폭, 배색, 즉 스트라이프의 색상과 바탕의 색을 달리하여 변화시켜 봄으로써 이들 중 어떤 단서들이 상호작용하여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를 통해 스트라이프 문양에 대한 개념과 스트라이프 문양, 색상대비, 의복스타일과 관련한 인상평가와 지각반응에 관해 고찰해봄으로써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형성하고자 한다.

### 1. 스트라이프 문양

선과 색채의 일정한 반복과 변화에 의해 리듬을 느끼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스트라이프(stripe)이다. 스트라이프 문양은 장식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인간이 표현한 가장 단순한 무늬로 각 민족 고유의 정서와 리듬을 특색 있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다<sup>3)</sup>. 1998년과 2004년을 대상으로 20대 여성상의 유행 경향의 변화를 조사한 조정미<sup>4)</sup>의 연구결과에서도 문양 중 스트라이프 문양이 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색상, 명도, 채도의 차를 크게 한 배색은 대비 현상에 의해서 강렬한 느낌을 주며, 특히 빨강, 주황 등이 들어간 배색은 정열적인 느낌을 준다. 비비드 톤의 배색은 어느 색을 막론하고 화

려하고 활력이 넘치며 발산되는 색이다<sup>5)</sup>.

설화정, 박희숙, 홍경희<sup>6)</sup>은 명도차, 폭, 배열, 간격을 중심으로 수직 스트라이프에 변화를 주어 소비자 감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의미 있는 감성차이를 유발하였다. 스트라이프 폭이 좁을 때, ‘고급스러운’, ‘모던한’, ‘캐주얼한’ 감성을 나타내었고, 스트라이프 간의 폭이 좁을수록 ‘고급스러운’ 감성을 유발했다. 또한 단순배열일 때 ‘수수한’, ‘깨끗한’, ‘심플한’ 감성을 나타내었고, 교차배열 방식은 ‘캐주얼한’ 감성을 유발했다. 또, 스트라이프 문양은 방향에 따라 그 이미지가 달라진다. 수직 스트라이프는 도시적인 이미지를, 수평 스트라이프는 스포티한 느낌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규칙적인 폭을 가진 스트라이프의 경우 위안감과 안락감을 주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규칙적으로 반복하게 될 경우 지루함을 줄 수 있다<sup>7)</sup>.

스트라이프 패턴은 다양한 변형과 방향 변화를 통해 시각적 착시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선의 방향과 굵기, 간격을 달리하여 다양한 효과를 내게 된다. 이러한 착시를 통해 신체적 결점을 감추거나 매력적인 부분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sup>8)</sup>은 흑백 스트라이프 무늬 원피스 드레스의 시각효과를 연구한 결과, 수평 스트라이프와 수직 스트라이프 모두 사선 스트라이프나 수평과 수직의 복합 스트라이프 문양이 배열된 원피스 드레스보다 체형을 굵고 넓게 보이게 한다고 하였다. 특히 수평 스트라이프는 아름답지 않고 싫어하는 문양으로 지각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줄무늬는 흑백 모두 약 3cm로 다소 굵은 스트라이프 문양이었다. 이에 반해 김주은<sup>9)</sup>은 다소 폭이 넓지 않은 스트라이프 패턴이 배열된 방향을 중심으로 굵기와 간격을 달리했을 때, 특히 수평의 스트라이프를 전신에 걸쳐 규칙적으로 반복배열 할 경우, 눈을 수평으로 끌 공간은 너무 짧고 수직으로 유도할 길이가 충분하므로 오히려 수직선의 효과를 내게 되어 오히려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짧은 상의에만 수평 방향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사용한다면 수평의 효과가 더 강조되는 효과를 준

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복 스타일에 따라 문양의 방향, 문양의 폭, 스트라이프 문양과 바탕색의 배색조합을 달리하여 자극물을 제작한다면, 인상형성에 또 다른 구성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색상대비

색채를 경험하면 마음의 심부가 자극을 받게 된다. 이는 색이 양적으로 정확히 명시된 색상, 채도, 명도의 차원을 가진 시각적 경험의 속성으로, 시각을 통하여 지각되므로 생리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감각을 통하여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sup>10)</sup>. 이러한 색채의 특성은 어떤 관념의 상징, 심리적인 효과, 감성적인 효과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양지영<sup>11)</sup>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보색배색의 색채 균형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대생들은 보색배색에 있어서 선호하는 배색을 균형적이라고 지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배색 또한 균형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색조차가 큰 대비, 대조 색조끼리의 보색배색을 가장 균형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명도 및 채도가 낮은 색과 높은 색과의 조합을 가장 균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경자, 정수진<sup>12)</sup>은 콘트라스트 배색을 중심으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을 연구한 결과, 노랑, 초록 저고리의 보색 및 분보색 조화가 되는 치마의 톤 차이에 따른 총 64개의 콘트라스트 배색에 대한 두 문화권의 지각반응에서 미국 여대생이 한국어대생보다 조화영역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 여대생이 저고리는 밝고 치마는 어둡고 탁한 톤으로 배색에 익숙하여 조화영역의 범위가 전통적인 배색방법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배색조화감에 대한 국가 간의 문화의 차이를 규명한 결과이다.

유사색상의 배색은 명도나 채도의 차이를 크게 하면 효과적인 배색이 된다. 반대색상의 배색은 서로 대비되는 컬러의 차가 큰 배색으로

화려하고 강한 느낌과 분명하고 동적인 느낌을 주며, 보색관계의 배색이라고도 볼 수 있다<sup>13)</sup>. 또 강경자, 문주영, 임지영<sup>14)</sup>은 한복배색 시 저고리와 치마에 유사배색과 대비배색이 되도록 조합한 후, 톤을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톤으로 조작하여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화감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여대생은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의 유사배색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의 대비배색 모두 톤이 비비비드인 전통배색일 때가 가장 잘 조화된다고 한 반면, 미국 여대생은 일관된 평가를 하지 않아 문화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국 여대생은 전통적인 배색이 주는 고정관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고 미국여대생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친근한 배색이 조화를 이룬다는 Judd의 조화론<sup>15)</sup>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 3. 의복스타일

같은 문양에 같은 색상을 사용하더라도 의복스타일이 달라지면 인상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Pack<sup>16)</sup>의 연구에서는 대담한, 보수적인, 드레시한, 캐주얼한 스타일의 4가지 여성복 중 보수적인 스타일과 캐주얼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신뢰감을 주고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대담한 스타일은 가장 매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드레시한 스타일은 타인에게 의존적이며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윤경, 강경자<sup>17)</sup>는 의복스타일, 의복색, 톤조합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결과 매력성, 품위성, 현시성요인에서 의복스타일은 다른 의복단서인 의복색 또는 톤 조합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경과 강경자<sup>18)</sup>는 색상, 톤, 스커트 폭, 길이에 변화를 주어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의 인상을 분석한 결과, 능력·활동성 차원에는 스커트 길이가, 품위성 차원에서 스커트 폭이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여 원피스드레스 착용자의 각 인상차원에는 영향력 있는 단서로 나타났다. Gibbins

와 Coney<sup>19)</sup>의 연구에서도 스커트 길이, 티셔츠 형태에서 목 과임에 따라 인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스타일은 인상형성에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스트라이프 문양, 콘트라스트 배색, 의복스타일이 조화감 평가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복단서들이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작용하여 인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본 논문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의복스타일과 스트라이프 방향, 폭, 색상대비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을 밝힌다.

**[연구문제 2]** 의복스타일과 스트라이프 방향, 폭, 색상대비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 2. 실험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의복스타일과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 폭, 배색에 따른 자극물로 이에 대한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의복 착용자의 모델은 제 4차 한국표준체위예비조사(2003.5)자료와 선행연구자(팽숙경, 강경자)<sup>20)</sup>가 사용한 기준을 참고로 표준체형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20대 여대생 3명을 선정하여 평가집단(대학원, 대학생)에게 평가하게 한 후, 표준체형(키 162cm, 몸무게 52kg)에 가장 근접한 1명을 최종선정 하였다. 얼굴형은 ‘얼굴, 한국인의 낮’에서 제시하는 한국인의 평

균 얼굴 기준인 머리전체 길이 233.38mm, 얼굴의 길이 194.05mm, 이마의 가로 폭 120.66mm에 가까운 계란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얼굴색상은 최영훈이 제시한 한국인의 피부색으로 가장 많은 색채로 나타난 6.5YR 7/3으로 하였다<sup>21)</sup>.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은 크게 의복, 의복 착용자, 상황이다. 의복에서는 의복 유형, 스타일, 색상 등이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22)</sup>. 이들 요인 중 의복 스타일이나 재질, 문양, 배색되는 색상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은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의복스타일, 의복문양, 색상조합에 변화를 준 자극물을 선정하였다.

먼저 의복스타일은 평가집단에 의해 2가지 스타일군(① 티셔츠/청(jean)팬츠, 자켓/청 스커트, ② 티셔츠/베이지색 면 팬츠, 자켓/베이지색 면 스커트)이 선정되었는데 2가지 스타일군으로 pre-test를 한 결과, 스타일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20대 여대생들의 소유정도와 착용빈도가 높고 스트라이프 문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티셔츠/청 팬츠를 캐주얼 스타일로, 자켓/청 스커트를 포멀 스타일로 최종

선정하였다. 자켓의 칼라(collar)는 테일러드 칼라로 통제하였다. 또 스커트 길이는 무릎 아래 길이로, 스커트와 바지의 재질은 데님(jean)으로 통제하였다.

의복문양은 스트라이프(stripe)문양으로 통제하고 문양의 폭과 방향에 변화를 주었다.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은 사선을 제외한 가로 세로 방향으로 구분하여 수평선, 수직선 두 종류로 제한하였고 폭은 선행연구<sup>23)24)25)</sup>와 2005년 서울, 대구 지역의 원단시장에 나와 있는 스트라이프 문양의 폭을 참고로 하여 문양의 폭과 간격을 동일하게 각각 1.6, 4.0, 6.4, 10.0cm로 구분하여 <그림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의복색상 중 하의인 스커트와 바지는 pre-test를 통해 청지로 상의는 스트라이프 문양의 색상에 변화를 주어 콘트라스트 배색(contrast coloration)이 되도록 통제하였다.

본 논문에서 스트라이프 문양에 사용된 배색은 빨강/청록(R/BG), 노랑/남색(Y/PB), 녹색/자주(G/RP), 파랑/주황(B/YR), 보라/연두(P/GY) 5가지로 스트라이프 문양의 색상이 바탕색과 대비되어 색상대비를 이루도록 조합하였다. 이 때 사

의복스타일	1.6cm		4.0cm		6.4cm		10.0cm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캐주얼웨어: 티셔츠/ 팬츠								
포멀웨어: 자켓/ 스커트								

<그림1> 자극물에 사용된 스트라이프 문양

용된 색상은 <표1>과 같고 톤은 vivid로 통제하였다.

이상에서 선정된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 폭, 배색과 함께 의복스타일을 조합한 자극물을 디지털카메라 Nikon Coolpix 8800VR로 촬영한 후 자극물을 Nedgraphics CAD system과 Adobe Photoshop CS program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의복스타일(2: 티셔츠/팬츠, 자켓/스커트), 상의 스트라이프 문양의 색상대비 조합(5: R/BG, Y/PB, G/RP, B/YR, P/GY), 스트라이프 문양 방향(2: 수직, 수평)과 문양 폭(4: 1.6, 4.0, 6.4, 10.0cm)을 다르게 하여 4가지 독립변인이 모두 조합되

도록 조작한 후 총 80개의 자극물을 (14.5× 21 cm)을 완성하였다. 이때 자극물의 배경과 피험자의 외모는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배경색은 white로 처리하고 피험자의 헤어스타일, 얼굴, 자세를 통제하여 Fuji Xerox Phaser 8500N으로 출력하였다. 본 연구의 자극물의 조작내용은 <표2>와 같다.

2) 실험설계 및 자극물평가

본 실험은 독립변인인 의복스타일(2), 상의 스트라이프 문양의 색상대비 조합(5), 스트라이프

<표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대비 조합과 색상

① 빨강(5R)-청록(5BG)	② 노랑(5Y)-남색(5PB)	③ 녹색(5G)-자주(5RP)	④ 파랑(5B)-주황(5YR)	⑤ 보라(5P)-연두(5GY)
5R 4/14-5BG 5/10	5Y 8.5/14-5PB 4/12	5G 5/10-5RP 4/12	5B 5/10-5YR 6/14	5P 4/12-5GY 7/12

<표2> 자극물의 조작내용

배색 의복스타일 문양방향 문양 폭		빨강/청록 (R)	노랑/남색 (Y)	녹색/자주 (G)	파랑/주황 (B)	보라/연두 (P)	
캐주얼웨어: 티셔츠/팬츠 (T)	수평 (H)	1.6cm( I)	RTH I	YTH I	GTH I	BTH I	PTH I
		4.0cm( II)	RTH II	YTH II	GTH II	BTH II	PTH II
		6.4cm(III)	RTH III	YTH III	GTH III	BTH III	PTH III
		10.0cm(IV)	RTH IV	YTH IV	GTH IV	BTH IV	PTH IV
	수직 (V)	1.6cm( I)	RTV I	YTV I	GTV I	BTV I	PTV I
		4.0cm( II)	RTV II	YTV II	GTV II	BTV II	PTV II
		6.4cm(III)	RTV III	YTV III	GTV III	BTV III	PTV III
		10.0cm(IV)	RTV IV	YTV IV	GTV IV	BTV IV	PTV IV
포멀웨어: 자켓/스커트 (J)	수평 (H)	1.6cm( I)	RJH I	YJH I	GJH I	BJH I	PJH I
		4.0cm( II)	RJH II	YJH II	GJH II	BJH II	PJH II
		6.4cm(III)	RJH III	YJH III	GJH III	BJH III	PJH III
		10.0cm(IV)	RJH IV	YJH IV	GJH IV	BJH IV	PJH IV
	수직 (V)	1.6cm( I)	RJV I	YJV I	GJV I	BJV I	PJV I
		4.0cm( II)	RJV II	YJV II	GJV II	BJV II	PJV II
		6.4cm(III)	RJV III	YJV III	GJV III	BJV III	PJV III
		10.0cm(IV)	RJV IV	YJV IV	GJV IV	BJV IV	PJV IV

문양방향(2)과 문양 폭(4)의 4원 요인설계로 이루어졌다. 4개의 독립변인(2×5×2×4)에 의해 조합된 총 80개의 자극물은 40개의 실험조합으로 1개의 조합에 2개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 당 관찰자 수는 12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되었다.

### 3) 의미미분척도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의복착용자와 인상형성에 관한 선행연구(26)(27)(28)(29)(30)(31) 등에서 사용된 형용사쌍과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쌍 10개를 추가하여 총 41쌍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으나 요인분석 결과 26개의 형용사쌍이 최종 선정되었다. 자극물 속의 착용자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로 각 형용사쌍을 기준으로 좌측의 긍정적 형용사에 7점, 우측의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피험자는 서울,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여대생 4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6년 5월 중에 이루어졌다.

###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스트라이프 문양, 의복스타일, 콘트라스트 배색 조합에 따른 여성의 인상차원에 대한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였다. 각 인상차원별로 용어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총 26개의 형용사쌍에 대해  $\alpha=.90$ 으로 용어들은 내적 일관성 있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스트라이프 문양, 의복스타일, 콘트라스트 배색 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보조분석으로 다중분류분석(MCA: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의복스타일, 스트라이프 방향, 폭, 색상대비에 따른 인상차원의 요인분석

착용자의 의복스타일, 상의의 스트라이프 문양과 폭, 배색 조합에 변화를 준 80개의 자극물에 대한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을 밝히기 위하여 26개의 형용사쌍을 의미미분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도출된 인상차원의 신뢰도는 각각 .93, .83, .81, .72, .54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2.4%로 세련된-촌스러운, 사고 싶은-사고 싶지 않은, 매력 있는-매력 없는, 좋아하는-싫어하는 등이 포함된 8개의 형용사쌍을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세련된, 유행에 앞선, 감각적인 등의 형용사쌍이 이 요인에 포함된 것은 세련되고, 감각적이고, 유행에 앞선 스타일을 보면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는 20대 젊은 여성들의 매력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요인 2는 전체변량에 대해 12.3%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강한-약한, 강렬한-은은한, 대담한-소심한 등 5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어 ‘현시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11.5%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가벼운-무거운, 밝은-어두운, 시원한-따뜻한 등 총 5개의 형용사쌍은 주로 시각적 무게, 농도, 밀집도 등으로 움직임의 자유로운 정도와 관련되어 ‘활동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활동성 요인에 사교적인-비사교적인 형용사쌍이 포함된 것은 착용자의 활동성 이미지와 사교성 이미지와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4는 단정한-단정하지 못한,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등 5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깔끔함’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력은 전체변량의 10.1%를 차지하였다.

요인 5는 전체변량의 6.6%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따뜻한-차가운, 감성적인-이성적인, 부드러운-딱딱한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온유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표3〉 의복스타일,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과 폭, 배색 조합에 따른 인상차원 분석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성(h2)
요인 1. 매력성 요인						
세련된-촌스러운	<b>.845</b>	-.005	.116	.137	.101	.756
사고싶은-사고싶지않은	<b>.826</b>	-.084	.130	.038	.103	.718
매력있는-매력없는	<b>.825</b>	.191	.109	.059	.102	.743
좋아하는-싫어하는	<b>.795</b>	.017	.180	.137	.112	.696
보기좋은-보기싫은	<b>.782</b>	-.066	.191	.236	.116	.721
감각있는-감각없는	<b>.769</b>	.140	.239	.119	.087	.689
유행에앞선-유행에뒤떨어진	<b>.763</b>	.269	.167	.025	.060	.687
자연스러운-어색한	<b>.708</b>	-.153	.205	.269	.130	.656
요인 2. 현시성 요인						
강한-약한	-.026	<b>.789</b>	-.048	.084	.017	.633
강렬한-은은한	-.052	<b>.775</b>	.109	-.083	.038	.624
대담한-소심한	.143	<b>.707</b>	.286	-.093	.043	.613
화려한-수수한	.168	<b>.620</b>	.319	-.298	.258	.669
눈에잘띄는-평범한	.002	<b>.615</b>	.373	-.156	.330	.651
요인 3. 활동성 요인						
가벼운-무거운	.270	-.041	<b>.724</b>	-.047	.147	.622
밝은-어두운	.246	.226	<b>.675</b>	-.001	.344	.685
시원한-답답한	.344	.222	<b>.641</b>	.181	.001	.611
사교적인-비사교적인	.319	.246	<b>.608</b>	.283	-.009	.613
동적인-정적인	.132	.345	<b>.555</b>	.044	.077	.452
요인 4. 깔끔함 요인						
단정한-단정치못한	.168	-.031	.053	<b>.799</b>	.087	.678
깔끔한-깔끔하지않은	.250	.105	.225	<b>.750</b>	.063	.692
정숙한-정숙하지않은	.181	-.111	-.319	<b>.619</b>	.247	.591
안정된-불안정한	.376	-.054	.332	<b>.533</b>	.122	.554
단순한-복잡한	-.007	-.254	.018	<b>.475</b>	-.102	.301
요인 5. 온유성 요인						
따뜻한-차가운	.112	.188	.085	.227	<b>.725</b>	.632
감성적인-이성적인	.159	.304	.096	-.098	<b>.605</b>	.503
부드러운-딱딱한	.330	-.212	.246	.192	<b>.569</b>	.575
고유치	5.828	3.196	2.985	2.630	1.724	16.363
전체 변량의 %	22.415	12.292	11.481	10.114	6.629	62.931
공통 변량의 %	35.618	19.533	18.244	16.072	10.534	100.00



회귀모형방식에 의해 산출된 요인점수들의 결과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매력성 요인에서 세련되고, 사고 싶고, 매력 있고, 감각 있고, 유행에 앞선 것으로, 현시성 요인에서는 강하고, 강렬하고, 대담하고, 눈에 잘 띄는 것으로, 활동성 요인에서는 가볍고, 밝고, 시원하고, 사교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또한 깔끔함 요인에서는 단정하고, 깔끔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온유성 요인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감성적으로 평가됨을 의미한다.

전체변량에서 5개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2.9%이며 이중 매력성과 현시성 요인이 56.1%를 차지하여 두 요인이 착용자의 의복스타일, 스트라이프 문양과 폭, 콘트라스트 배색 조합을 단서로 하여 형성되는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 2. 의복스타일, 스트라이프 방향, 폭, 색상대비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착용자의 의복스타일,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과 폭, 배색 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4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분석결과 독립변인인 착용자의 의복스타일,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과 폭, 배색 조합이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서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인상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요효과는 단서가 착용자의 의복스타일 또는 문양방향인 경우에는 매력성, 현시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문양배색인 경우에는 현시성, 활동성, 온유성 요인에서, 단서가 문양 폭인 경우에는 활동성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단서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매력성, 활동성, 깔끔함 요인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현시성, 온유성요인에서는 단서들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요효과의 영향력을 알아 보았다. 의복 착용자의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

는 단서들 간의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2>, <그림3>, <그림4>에 나타내었으며 단서들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인상차원별로 고찰하였다.

### 1) 매력성 차원

매력성 차원을 <표4>에서 살펴보면, 착용자의 의복스타일, 문양 방향이 주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은 매력성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MCA 평균값의 차를 살펴보면, 의복스타일이 자켓/스커트인 경우 세련되고 사고 싶은 것으로, 티셔츠/팬츠인 경우에는 촌스럽고 사고 싶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스트라이프 문양방향이 수평일 때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세련되고, 사고 싶고, 매력적인 것으로, 이에 반해 수직일 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촌스럽고, 사고 싶지 않으며, 매력이 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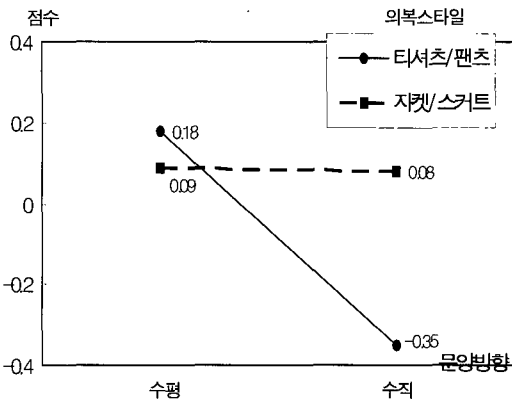
이와 같이 매력성 차원에서 의복스타일과 문양의 방향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상호작용하여서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스타일과 문양 방향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2>에서 보면 의복스타일이 포멀한 자켓/스커트일 경우는 스트라이프 문양에 방향이 즉 수직이든 수평이든 상관없이 다소 매력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고 의복스타일이 캐주얼한 티셔츠/팬츠일 경우는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여 문양의 방향이 수평일 경우는 아주 매력이 있는 것으로, 수직일 경우는 매우 매력이 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의복스타일에 따라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은 다르게 평가되었다. 즉 포멀한 자켓/스커트 차림인 경우는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이 매력성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캐주얼한 티셔츠/팬츠 차림인 경우는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에 따라 매력성 이미지가 매우 상반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원피스 드레스의 수직 스트라이프 문양을 다양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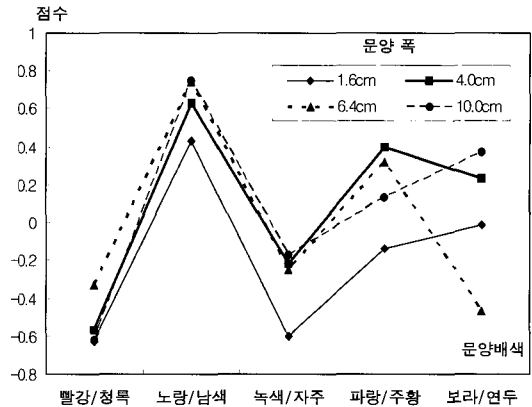
<표4> 의복스타일,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과 폭, 배색 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변량원		요인	매력성		현시성		활동성		깔끔함		온유성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주효과	의복스타일(A)	6.429	6.791**	7.909	8.218**	.073	.090	2.388	2.417	.054	.055	
	문양배색(B)	1.900	2.007	4.089	4.248**	35.181	43.422***	1.777	1.799	8.438	8.598***	
	문양방향(C)	15.240	16.098***	17.476	18.159***	1.416	1.748	3.015	3.051	.013	.013	
	문양 폭(D)	1.366	1.443	1.030	1.070	3.850	4.752**	1.397	1.413	2.173	2.214	
2원 상호작용	A×B	.330	.348	1.532	1.592	.786	.970	.474	.479	.850	.866	
	A×C	14.372	15.181***	1.995	2.073	.419	.517	10.287	10.411**	.296	.302	
	A×D	1.131	1.194	.248	.258	1.003	1.238	.815	.825	1.111	1.132	
	B×C	.476	.503	.778	.808	1.342	1.657	.225	.227	.255	.259	
	B×D	.898	.949	1.061	1.103	2.026	2.500**	1.117	1.131	.537	.547	
	C×D	1.909	2.016	.285	.296	.120	.148	.108	.109	.196	.200	
3원 상호작용	A×B×C	1.967	2.078	2.093	2.175	1.451	1.791	.559	.566	.565	.576	
	A×B×D	.877	.927	1.027	1.067	.721	.890	1.083	1.096	.482	.491	
	A×C×D	1.689	1.784	.529	.550	.518	.639	.907	.918	.359	.366	
	B×C×D	.640	.676	.665	.691	1.006	1.242	.817	.827	.797	.812	
4원 상호작용	A×B×C×D	1.548	1.635	.557	.579	.698	.861	1.281	1.296	1.514	1.542	
MCA	변인	수준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의복 스타일	티셔츠/ 팬츠(T/P)	-0.09	-0.10	-0.01	.05	-0.01	.05	-0.01	.05	-0.01	
		자켓/스커 트(J/S)	.09	.10	.01	-0.05	.01	-0.05	.01	-0.05	.01	
	문양 배색	빨강(R)- 청록(BG)	-0.18	.13a	-0.54d	-0.03	-0.32c	-0.03	-0.32c	-0.03	-0.32c	
		노랑(Y)- 남색(PB)	.06	.19a	.64a	.01	-0.01b	.01	-0.01b	.01	-0.01b	
		녹색(G)- 자주(RP)	.06	-0.01ab	-0.31c	-0.16	-0.07b	-0.16	-0.07b	-0.16	-0.07b	
		파랑(B)- 주황(YR)	.07	-0.14b	.18b	.09	.26a	.09	.26a	.09	.26a	
		보라(P)- 연두(GY)	-0.02	-0.16b	.03b	.09	.14ab	.09	.14ab	.09	.14ab	
		수평(H)	.13	-0.14	-0.04	.06	.00	.13	-0.14	-0.04	.06	.00
	문양 방향	수직(V)	-0.14	.14	.04	-0.06	.00	-0.14	.14	.04	-0.06	.00
		문양 폭	1.6cm	.02	.01	-0.20b	-0.12	-0.03	.02	.01	-0.20b	-0.12
	4.0cm		.11	.02	.11a	.06	.15	.11	.02	.11a	.06	.15
	6.4cm		-0.06	-0.10	.00a	.04	-0.09	-0.06	-0.10	.00a	.04	-0.09
	10.0cm		-0.06	.07	.08a	.02	-0.02	-0.06	.07	.08a	.02	-0.02
	Multiple R2			.140	.126	.264	.103	.109				

\*\* : p < .01    \*\*\* : p < .001    a>b>c>d : Duncan test



<그림2> 매력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문양방향과 의복스타일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3> 활동성 차원에 미치는 문양배색과 문양 폭의 상호작용효과

으로 배열된 스트라이프 문양 디자인과 비교 실험한 결과, 수평방향의 스트라이프 문양이 가장 싫어하는 디자인으로 지각된 이경희(2012)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것은 의복스타일이 상이하고 원피스 드레스인 경우 스트라이프 문양이 전신에 방향된 것에 비해 본 연구의 자극물은 스트라이프 문양이 상반신으로 제한되어 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시성 차원

<표4>에서 현시성 차원을 보면 문양 폭을 제외한 의복스타일, 문양배색, 문양방향이 주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양방향은 매력성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되었다. 각 단서들의 주효과를 MCA 평균값의 차를 통해 비교해 보면 문양방향이 수직으로 될 때 강하고, 대담하며, 화려한 것으로 지각되었고, 의복스타일이 자켓/스커트일 때 긍정적인 현시성 요인으로 지각되었다. 또 문양배색이 노랑/남색일 때 가장 현시적인 것으로 보라/연두일 때 다른 색상대비에 비해 가장 약하고, 소심하며, 평범한 것으로 지각되어 강렬한 색상대비 간에도 톤의 차이가 있으므로 배색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었다. 그러나 각 단서들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적으로 나타

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시성 요인에서 의복스타일, 문양배색, 문양방향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오히려 주효과로 독립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활동성 차원

활동성 차원을 <표4>에서 살펴보면 상의 문양의 배색과 폭이 주효과로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평균값의 차를 통해 주효과를 살펴보면 문양배색이 노랑/남색일 때 가장 가볍고, 밝고, 시원하며 사교적인 것으로 지각되었고 빨강/청록, 녹색/자주일 때 무겁고, 어둡고, 답답하며 비사교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양 폭이 4.0cm일 때 가장 활동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반면에 문양 폭이 1.6cm로 가장 좁을 때 아주 무겁고, 비사교적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문양 폭은 좁아 답답해 보이는 디자인보다는 문양배색 폭이 보통(4.0cm)이거나 폭이 너무 넓어 문양인지 배경색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10.0cm)일 때 가볍고, 시원하고, 사교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문양의 색상배색과 폭의 상호작용은 활동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에서 문양배색과 문양 폭 간격의 상호작용이 활동성 이미지로 평가되는 인상이 보라/연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성 있는 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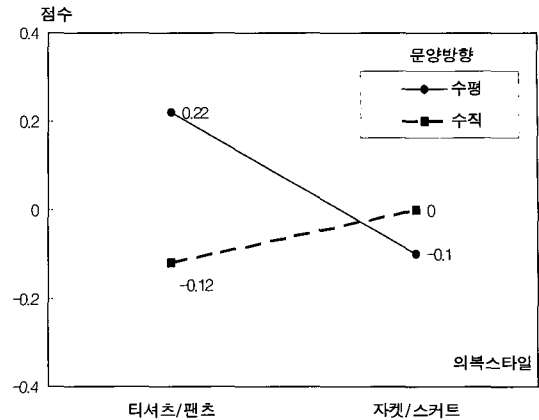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양배색이 노랑/남색일 때 문양 쪽에 관계없이 가볍고, 사교적인 인상을 주었고, 반면에 빨강/청록, 녹색/자주인 색상대비는 무겁고 답답하며 비사교적인 인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을 살펴보면, 노랑/남색 배색 조합의 경우 다른 색상조합에 비해高明도, 高채도인 노랑색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랑색이 포함된 노랑/남색 조합은 다른 배색 조합 중 가운데 색상간의 명도차가 가장 커서 동일한 면적비로 통제하여도 명도차가 8.5:4로 약 2:1의 면적비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다른 색상에 비해 노랑색의 면적이 크게 지각되어 노랑색이 가지는 이미지가 보다 잘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빨강/청록, 녹색/자주의 색상대비 조합은 다른 색상조합에 비해 명도차와 각 색상의 명도가 다소 낮으므로 문양의 쪽에 관계없이 무겁고, 어두우며 비사교적으로 지각되었다.

#### 4) 깔끔함 차원

<표4>에서 깔끔함 차원을 살펴보면 주효과로 정숙한 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주요단서도 없었다. 그러나 독립적인 영향력이 없었던 단서들이 상호작용하여 깔끔함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림4>에 의복스타일과 문양방향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이 수평일 경우는 의복 스타일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여 티셔츠/팬츠일 경우는 단정하고, 깔끔하고, 안정된 인상을 주는 반면에 의복스타일이 자켓/스커트일 경우는 깔끔하지 않고 불안정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여성들은 포멀스타일을 여대생은 포멀 스타일보다 캐주얼 스타일을 더 품위있고, 안정되며, 깔끔하다고 평가한 김윤경, 강경자<sup>33)</sup>의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준다. 그러나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이 수직일 경우는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깔끔한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으로 지각되고 특히 자켓/스커트 차



<그림4> 깔끔함 차원에 미치는 의복스타일과 문양방향의 상호작용 효과

림보다 티셔츠/팬츠 차림일 때 이러한 이미지가 강하게 지각되었다. 따라서 의복스타일이 자켓/스커트일 경우는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에 상관없이 다소 부정적으로 지각되지만 티셔츠/팬츠일 경우는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에 영향을 받아 같은 의복스타일도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에 따라 깔끔한 이미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온유성 차원

온유성 차원을 <표4>에서 살펴보면 주효과로는 문양배색만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단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유성 차원에서는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MCA의 평균값의 차를 통해 주효과를 살펴보면 문양배색이 파랑/주황일 때 가장 따뜻하고 감성적이며 부드러운 것으로 지각되었고 다음으로는 보라/연두 배색을 감각적인 배색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빨강/청록 배색은 다른 색상대비에 비해 가장 차갑고 이성적이며 딱딱한 인상으로 인식되어 문양배색은 착용자의 인상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형태와 색채에 관한 연구에서 따뜻함 인자에는 색상만이 영향을 준다고 한 石塚純子, 加藤雪枝, 檜山藤子<sup>34)</sup>결과와 유사하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복스타일과 스트라이프 문양의 배색, 방향, 폭의 변화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26쌍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하여 인상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이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의복스타일, 문양방향, 폭, 색상대비배색 조합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을 요인 분석한 결과 매력성, 현시성, 활동성, 깔끔함, 온유성 차원으로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4개의 요인인 의복스타일, 문양방향, 폭, 색상대비배색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상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매력성 차원의 인상에는 의복스타일, 문양방향이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의복스타일이 자켓/스커트일 때 수평방향의 문양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상호작용에서도 의복스타일과 문양방향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주효과와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에서도 의복스타일이 티셔츠/팬츠이고 문양방향이 수평으로 되었을 때는 매력이 있는 것으로, 반면 수직방향인 경우에는 매력이 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자켓/스커트인 경우에는 문양 방향에 관계없이 다소 긍정적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결과<sup>35)</sup>와 비교해 보면, 의복스타일과 스트라이프 문양이 의복의 전신에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상반신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게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현시성 차원의 인상에서는 문양 폭을 제외한 의복스타일, 문양배색, 문양방향은 독립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양방향은 매력성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매력성 차원과는 상반되게 수직으로 될 때 강하고, 대담하며, 화려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의복스타일은 매력성 차원에서처럼 자켓/스커트일 때 긍정적인 현시성 요인으로 지각되어 인상차원에 따라 의복단서들이 일관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는 않았다. 문양배색이 노랑/남색일 때 가장 현시적인 것으로 보라/연두일 때 다른 색상대비예 비해 가장 약하고, 평범한 것으로 지각되어 강렬한 색상대비 간에도 톤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었다. 그러나 각 단서들의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따라서 현시성 요인에서 의복단서들의 상호작용효과보다는 오히려 주효과로 독립적인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활동성 차원에서는 상의의 문양배색과 폭이 주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배색이 노랑/남색일 때 가장 가볍고, 밝고, 시원하며 사교적인 것으로 지각되었고 빨강/청록, 녹색/자주일 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문양 폭이 4.0cm일 때 가장 활동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폭이 1.6cm로 가장 좁을 때 가장 중량이 있고, 비사교적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문양 폭 사이가 좁은 디자인보다는 문양배색 사이의 폭이 자연스럽거나(4.0cm) 폭 사이가 너무 넓어 문양인지 배경색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10.0cm)일 때 가볍고, 시원하고, 사교적인 인상을 나타내었다. 상호작용에서도 문양배색과 문양 폭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보라/연두배색은 문양 폭이 10.0cm으로 가장 넓은 때 가장 긍정적으로, 6.4cm로 다소 넓은 경우에는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문양배색이 노랑/남색일 때 문양 폭에 관계없이 가볍고, 사교적인 인상을 주었고, 빨강/청록, 녹색/자주 색상대비는 무겁고 답답하며 비사교적인 인상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배색조합이 모두 색상대비이지만 사용된 색상들의 톤 차이에 의해 사용된 색상들의 폭이 일치하여도 각 색상이 가지는 면적감이 달라 노랑/남색배색 중 노랑색은 남색이나 다른 색상에 비해 면적감이 크므로 다른 디자인 단서보다 색상의 이미지가 두드러져 활동성 차원에서 중요한 단서로 작용되었다.

깔끔함 차원의 인상에서는 효과로 정숙한 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서는 없었지만 의복단서들의 상호작용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의복스타일과 문양방향이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어 의복스타일이 티셔츠/팬츠이고 수평 방향의 문양은 단정하고 정숙하

며 안정된 인상을 주었지만 의복스타일이 자켓/스커트인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문양이 배치되어도 부정적인 인상으로 지각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커트 차림의 포멀웨어가 팬츠차림의 캐주얼웨어보다 더 정숙하다고 평가하지만 오히려 여대생은 자신들에게 보다 더 익숙하고 의복 소유도가 높은 티셔츠와 팬츠를 오히려 단정하고, 깔끔하고, 정숙하며, 안정된다고 평가하였다.

온유성 차원을 살펴보면 문양배색만이 주요 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도 없었다. 문양배색이 파랑/주황일 경우 따뜻하고 감성적이며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고 지각하였고 빨강/청록배색은 다른 색상대비에 비해 가장 차갑고 이성적이며 딱딱한 인상으로 인식되어 문양배색은 온유성 차원에서 인상을 평가하는 단서로 중요한 단서로 인지되었다.

이상에서 의복스타일과 문양배색, 방향, 폭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각기 독립된 정보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각 인상차원에 독립된 정보로 사용되지 않았던 단서들도 지각단계에서 상호작용으로 통합되어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정보들은 지각단계에서 서로 통합되어 지각되므로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복스타일과 문양배색, 방향, 폭에 따라 차이를 보여 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고 보는 Asch(1946)의 형태적 접근이론을 지지해 준다.

본 연구는 캐주얼웨어나 포멀웨어에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06 S/S, F/W 트렌드로 패션의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상형성 분야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스트라이프 문양을 의복스타일에 따라 문양의 배색과 폭, 방향을 다르게 조합하여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패션디자인 요소를 보다 복합적으로 보다 심도 깊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의 배색조합은 콘트라스트 배색 중 색상대비만을 다루었으므로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채도, 명도 콘트라스트에 대한 인상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상 평가 시 피험자의 범위가 한정되고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박신경 (2005). 줄무늬 문양 복식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역사적 고찰-중세부터 19C 말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3(3), pp.391-405.
- 2) Michel Pastoreau (2003). *악마의 무늬*, 스트라이프. 서울: 이마고출판사, p.141.
- 3) 김혜수, 김영인 (2004). 자연물에 나타난 스트라이프(stripe)의 선과 색채에 의한 리듬 특성. *한국색채학회지* 18(1), pp.45-56.
- 4) 조정미 (2005). 20대 여성 상의의 착용 색채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1998년과 2004년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9(5), pp.680-691.
- 5) 김주은 (2001). 의상 디자인 줄무늬 연구-20세기 이후 서양 여성패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2.
- 6) 설화정, 박희숙, 홍경희 (2003). 수직 스트라이프 패턴의 디자인 요소와 감성과의 관계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6(1), pp.1-15.
- 7) 김주은 (2001). Op. cit.
- 8)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1990). 원피스 드레스의 줄무늬 시각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14(4), pp.314-323.
- 9) 김주은 (2001). Op. cit.
- 10) John Gage (1999). *Color and Mean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11.
- 11) 양지영 (2005).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보색 배색의 색채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4.
- 12) 강경자, 정수진 (2005).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 (제4보) -콘트라스트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9(6), pp.825-836.
- 13) 김현성 (2001). *색채학*. 서울: 일진사, p.51.
- 14) 강경자, 문주영, 임지영 (2005). 치마·저고리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미

- 여대생의 조화감 비교 연구 -유사배색과 대비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 7(3), pp.17-26.
- 15) 近江源太郎, 권민 역 (1991). *조형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p.239.
- 16) Pack, S. L. (1986).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5(1), pp.10-16.
- 17)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27(3/4), pp.395-406.
- 18) 최수경, 강경자 (2003).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폭의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4), pp.459-473.
- 19) Gibbins, K. & Coney, J. R. (1981). *Meaning of Physical Dimension of Woman's Clothing. Perceptual and Motor Skills*, pp.720-722.
- 20) 팽숙경, 강경자 (2005).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9(9/10), pp.1207-1218.
- 21) 정해선, 강경자 (2004). 헤어스타일·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3/4), pp.460-471.
- 22) 강혜원 (2000).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p.59-82.
- 23) 김혜수, 김영인 (2004). Op. cit.
- 24)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1990). Op. cit.
- 25) 설화정, 박희숙, 홍경희 (2003). Op. cit.
- 26) 정해선, 강경자 (2004). Op. cit.
- 27) 최수경, 강경자 (2003). Op. cit.
- 28) 김윤경, 강경자 (2003). Op. cit.
- 29) 문주영, 강경자 (2003). 상·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27(1), pp.111-122.
- 30) 설화정, 박희숙, 홍경희 (2003). Op. cit.
- 31)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1990). Op. cit.
- 32) Ibid, pp.314-323.
- 33) 김윤경, 강경자 (2003). Op. cit.
- 34) 石塚純子, 加藤雪枝, 檜山藤子 (1987). 各種デザインにおける着装イメージ. *日本家庭學會誌* 38(4), pp.321-332.
- 35)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1990). Op. cit.